전 세계 명상 한자리 '국제명상엑스포' 개막

9월 25일 동국대서 개막식
'명상, 하나 되는 길' 주제
진우 스님 '선명상' 기조강연
11월까지 학술 · 문화 등 다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막식이 9월 25일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의 명상을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한국 전통 명상의 우수성을 알릴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명상, 하나 되는 길'이 9월 25일 서울 동국대에서 막을 올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엑스포는 지난 4월 열린 'K-청소년 명상'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학술·문화·체험·교육의 4개 영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9월 25~26일에는 세계 명상 전문가와 해외 석학 6명과 국내 석학 3명이 참여해 최신 명상 연구를 공유하는 명상 콘퍼런스, 명상을 주제로 한국음악·클래식·무용·합창 등을 선보이는 선명상 콘서트, 세계 명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본관 남산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동국대 정각원장 제정 스님, 총무부장 성웅 스님,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사서실장 남전 스님, 박물관장 서봉 스님, 선명장위원장 금강 스님,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함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현대 사회가 선명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 경제적 불평 등 기술 혁신이 몰고 온 변화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선명상은 혼탁한 삶 속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준다"고 밝혔다. 이어 "선명상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인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학술·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명상의 길을 열어주고, 서로 다른 이들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하는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 주인공으로 이 자리를 체험하고, 바쁜 일상에서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명상법을 안내하고, 명상전문가의 지도 아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명상의 생활화를 이끌겠다"며 "앞으로도 'K-명상' 플랫폼으로 명상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김도형 문체부 종무실장은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차분히 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개막식에서는 뮤지컬 싯다르타 팀의 축하 공연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과 감정조절' 주제 기조강연도 진행됐다.

일본 유출된 보물급 불화 2점 '환지본처'

조계종, 환수 '용연사 영산회상도 · 삼장보살도' 공개


1998년 도난됐다가 환지본처한 대구 용연사 영산회상도.

도난 후 일본으로 유출됐던 불화 2점이 27년 만에 환지본처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는 "일본으로 유출됐던 대구 용연사의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2점을 환수했다"고 9월 25일 발표하고 이를 양평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에서 공개했다.

대구 용연사 극락전에 봉안돼 있던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는 1998년 9월 30일 도난돼 그간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일본의 한 소장가가 불화의 기증의사를 밝히며 소재가 파악됐다.

환수된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1731년에 그려진 대형불화로, 1728년 용연사 대웅전 중창 후 1731년에 불화 조성 불사가 진행됐다. 조성 당시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관음보살도, 제석천도 등 5점이 봉안됐지만 현재는 영산회상도만 남았다.

영산회상도의 수화승은 설잠(雪岑) 스님으로 이번 환수를 통해서 설잠 스님이 수화승으로서 그린 첫 불화임이 밝혀졌다.

용연사 영산회상도의 시주자로 영조의 장남 효장 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양어머니인 빈궁 조씨(1716~1751)가 등장하는 점도 주목된다.

함께 환수된 삼장보살도는 1744년 수탄(守坦) 스님이 조성했다. 형식과 화풍에 동화사 삼장보살도를 계승하면서, 천장보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 권속을 풍부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개인 소장자가 보관했던 관계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두 불화에 대해 보존처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비구니회원장으로 돌봄부터 장례까지 책임진다

〈葬〉

비구니회, 9월 25일 공청회 개최
상조회 가입 · 장례 대책 부족
운영비 마련 기탁 · 후원금 모연 必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고령 비구니 스님의 돌봄부터 장례까지 직접 챙기는 전국비구니회원장(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2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전국비구니회원장(葬)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전국비구니회원장은 전국비구니회가 주관해 상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노후 홀로된 비구니 스님들이 외롭게 임종을 맞이하거나, 평생 수행에 매진한 스님들이 인생을 회향하는 마지막 순간을 속가에 의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주목해 2024년 2월 열린 제34차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TF팀을 구성,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고 설문지 배포와 설명회 개최로 대중의 공의를 모았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장례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홀로 생활하는 노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살피기 위한 '전화상담 케어'와 49재, 기제사까지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발제 '전국비구니회원장의 필요성과 실행계획'에서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지난 1~4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83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젊은 스님들까지도 회원장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스님은 731명으로 88.2%에 달했다. 스님들 대다수가 아직 자신의 장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입적 후 상주가 돼 줄 스님이 없다고 응답한 스님은 335명(40.2%)이며 응답이 없는 경우도 120명(14.4%)이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전국비구니회에 소속돼 있으며(선학원 스님 포함) 회원장을 신청한 스님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금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언제 어디서라도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설 '봉행위원회'도 조직한다. 비구니회 소임자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체제도 구성한다.

이어 발제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일상케어 서비스를 위한 준비와 과제'에서 향후 정책적 과제로 △종단 차원의 지속 가능한 승려 노후복지 체계 수립 △지자체-사찰 협력 돌봄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 △스님 돌봄 자원봉사자 육성 △ICT 기술 활용 스마트 워치·건강알림 앱 등 응급 대응 체계 마련 △'불교형 요양 시설' 또는 수행 거주 복합 공간 구축 △홀로 거주하는 스님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요 분석 등의 제반 연구조사 등을 제안했다. 02-3411-8103

기탁금 : 국민은행 207301-04-139267, 후원금 : 국민은행 207301-04-136815

임은호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 개헌' 불발

중앙종회 제154회 임시회서
찬성 30표, 반대 18표 부결

종단 안팎으로 기대를 모았던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제 전환이 불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9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54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에서 4년 1회 연임으로 전환하는 종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찬성 30표, 반대 18표로 부결됐다. 이날 회의는 재적의원 57명 중 48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종헌 개정안 가결을 위한 '재적의원 2/3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38표가 필요했지만 개헌선까지는 8표가 부족했다.

대표 발의자 법륜 스님은 "종단이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단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해야 할 제도 개편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연임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헌 개정안은 축조심의 및 토의 과정을 생략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 일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의를 진행할 것을 누차 요청했다.

이에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찬반 토론을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결과는 개헌선인 38표를 넘지 못했다. 전국종무원장, 각급 기관장 등에 대한 의견 청취는 있었지만 공청회 등 종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신중일 기자

